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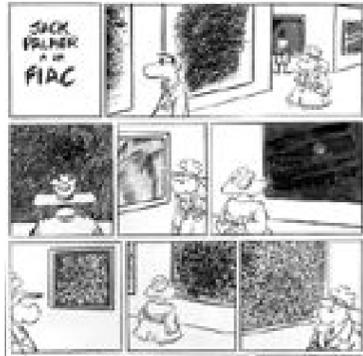
'사랑을 부르는 파리'

'프랑스와 만나다.'
광주프랑스문화원(원장 최승은)과 광주극장이 프랑스의 영화와 애니메이션, 만화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랑데부 드 프랑스'를 오는 27일부터 9월 9일까지 광주극장에서 개최한다.

프랑스 문화 진수를 만나다

광주극장 27일부터 내달 9일까지 '랑데부 드 프랑스'

'사랑을 부르는...' 등 영화·애니메이션 상영·만화 전시



'만화 백년전'

▲영화, 파리의 명소를 만나다

생마르탱 운하가 흐르는 파리의 한 호숫가에 머무르는 가난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북호텔', '파리에서 만들어진 가장 아름다운 영화'라는 수식어가 붙은 '5시부터 7시까지의 클레오', 까뜨린느 드뇌브와 제라드 드 빠르디유가 주연을 맡은 '마지막 지하철'을 만날 수 있다.

그밖에 파리지엔들의 소중한 일상을 사랑의 파리 곳곳의 명소와 함께 담아낸 줄리엣 비노쉬 주연의 '사랑을 부르는 파리', '타인의 취향' '룩셈부르' 등을 만든 프랑스 대표 여성감독 아네사자우이 감독의 고품

격 코미디 '레인', '행복한 프랑스 책방'을 영화화한 로맨틱 코미디 '마이 프렌드, 마이 러브', 누구나 꿈꾸는 낭만의 순간과 키스에 대한 사랑스런 이야기를 그린 '셀 위 키스' 등 프랑스 영화의 최근 흐름을 알 수 있는 작품들도 상영된다.

▲애니메이션 아름다운 상영회

프랑스의 대표적인 애니메이션을 만날 수 있다. '프린스와 프린세스'로 알려진 미셀 오슬로 감독의 '아주르와 아스마르'는 아랍 문화권의 강렬한 색채와 기하학적인 문양들을 선보이며 아주르와 아스마르 두 사람의 여정을 환상적으로 그려낸 작품이다. 칸느



'레인'

영화제 심사위원상을 받은 '페르세폴리스'는 고대 페르시아 문명이 꽃피었던 이란에서 태어난 마르잔의 눈을 통해 이란의 격동기를 생생하고 면밀하게 전달하는 성장이야기다.

별도의 관람료 대신 관객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관람할 수 있으며 수익금은 아름다운 가게 헌액방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기부된다.

▲프랑스어권 만화 백년전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는 프랑스 앙골렘 국립 만화영상물 센터 소장 작품 35점을 전시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만화들은 프랑스와 유럽은 물론 전 세계 만화의 역사상 중요한 시기의 작품이다.

까랑 다쉬, 니콜라 드 크레씨 등 프랑스와 벨기에 작가들의 대표작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224-5858. http://cafe.naver.com/cinemagwangju.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네 컬레의 장갑으로 남은 DJ

그는 은혜를 모르는(?) 남자였다. 지난 1999년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내와의 결혼 일화를 소개하며 자신의 '과오'를 자랑하듯 얘기했다.

"결혼할 무렵(1962년)제가 홀아비인데다 가난하고 지식까지 딸려 여러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반면에 아내의 조건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시 상당히 공을 들였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내가 조금 배짱을 부렸어요. '시집 못 간 노처녀를 거둬줬으니 내게 고마워 해야 한다. 그러니 나한테 좀 더 공손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아내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달라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어요."(웃음)

그는 아내의 진심도 모르는 속 좁은 남자였다. "(김대중내란 음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던 1980년, 아내가 '제발 김대중을 살려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글썽 '하나님 뜻에 따르겠다'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애원해도 아수론 처지에 (마치 다른 사람일 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니, 정말 섭섭하더군요."

김 전 대통령의 유머감각을 엿볼 수 있는 이 에피소드는 동시에 두 사람의 순탄치 않았던 지난 세월을 말해준다. 그의 말대로 '대통령이 꿈'인 것 이외에는 내세울 게 별로 없었지만 이희호 여사는 파란만장한 정치인생 내내 때론 빈리자로, 때론 동지로 그의 곁을 지켰다.

특히 이희호 여사의 '뜨개질 순애보'는 DJ에게 큰 힘이 됐다. 지난 76년 '3·1 민주 구국 선언'을 주도한 김 전 대통령은 77년 3월 징역 5년의 형이 확정돼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추위를 잘 타는 남편을 위해 아내는 직접 뜨개질한 방어리 장갑과 스웨터를 교도소로 보냈다. 아내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을까. 이듬해 12월 김 전 대통령은 형집행정지로 가석방됐다.

80년 7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청구교도소에 수감되자 아내는 또다시 뜨개질을 했다. 교도소에서 겨울을 두 번 보낸 남편은 82년 12월 형 집행정지로 다시 석방됐다. 말 그대로 기적이었다.

이제는 더 이상 뜨개질할 일이 없을 줄 알았던 팔손의 아내는 다시 뜨개바늘을 잡았다. 이번엔 교도소가 아닌 병실의 남편을 위해서였다. 병세가 악화되면서 손과 발이 차가워진 남편을 위해 지난 6일 손수 장갑과 덧신을 뜨개질했다.

남편이 떠나기 직전인 지난 18일 오후 1시20분, 아내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그이를) 저희에게 보내 주세요"라며 간절히 기도를 올렸다. 하지만, '네 번째 장갑'은 끝내 기적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리고 19일 아내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보내는 입 관에서 차서전 '동행'의 앞표지 뒷면에 친필로 '너무 쓰리고 아픈 고난의 생을 견뎌낸 당신을 나는 참으로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라는 이별편지를 써 관에 넣었다.

아내의 사랑이 듬뿍 담긴 따뜻한 털장갑을 간 채 영면한 DJ. 은혜도 모르고 진심도 몰라주는 야속한(?) 남편이었건만 그녀에게는 늘 '자랑스러운 동반자'였다. 그런 아내와 47년을 동행한 DJ는 분명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였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진돗개 백구가 부르는 진도아리랑

국립남도국악원 가무악극

26~27일 문예회관 대극장

진도에 위치한 국립남도국악원이 야심차게 준비한 가무악극 '백구가 부르는 진도 아리랑'(이하 '백구·사진')이 광주 시민들을 만난다. 26~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이번 무대는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기획공연으로 마련됐다.

'백구'는 지난해 11월 남도국악원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서울 국립국악원, 국립부산국악원, 남원 국립민속국악원 공연 등에서 찬사를 받았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진도를 상징하는 진돗개 백구의 시선을 통해 진도 사람들의 삶과 예술을 육자배기, 흥타령, 강강술래, 대금산조, 진도아리랑, 윗감굿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 대금산조의 창시자 박종기, 소치 허련, 무정 정만조



등 진도가 낳은 예술가들의 삶과 작품속에 녹아 있다. 김재운씨가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광주시립국악관악단 상임지휘자인 심인택씨가 음악을 만들었다. 백구역의 이지숙씨를 비롯해 허정숙·김대일씨 등 50여명의 단원이 출연한다. 2회 공연 모두 전좌석 무료 초대로 진행한다. 문의 062-540-4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새침...도도... 아이들의 얼굴

박성숙 전-내달2일까지 롯데화랑

박성숙 개인전이 오는 9월 2일까지 광주 롯데화랑에서 열린다.

'얼굴'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 박 씨는 다양한 아이들의 표정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새침하고 도도한 아이의 모습과 조금은 어색한듯 두손을 모으고 앉은 아이 등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림을 만날 수 있다.

또 인체의 아름다움을 묘사한 누드화와 크로키 작품도 전시하고 있다.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서양화를 전공한



박씨는 중국 청화대 미술학원 미술학 석사 과정을 마쳤으며 단원미술 대전 특선, 나혜석 미술대전 특선 등을 수상했다. 문의 062-221-1808.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Movie listings for '영화안내 HAPPY TIME' featuring various theaters like 메가박스, 콜롬버스 시네마, 하미 시네마, 씨너스 전대, and 제일 시네마 with their respective movie schedules.